



활짝 핀 산수유 “봄이 왔어요” 전남 낮 최고기온이 20.8도까지 오른 6일 화순군 너릿재 인근 갖길에 산수유가 노란 꽃망울을 터트리며 봄 소식을 알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안철수, 야권통합 거부 재확인

“광야에서 죽어도 좋다”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야권 통합 제안을 지난 4일 최고위원·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거부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안철수 공동대표가 6일 “광야에서 죽어도 좋다”며 강력한 이조로 이를 재확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사진)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더민주의 통합 제안에 대해 “현재 상황을 모면하려는 하책이고 만년야당 하자는 이야기와 같다”며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도권 연대’에 대해서도 “저희의 분명한 목표는 득권 양당체제를 깨는 것”이라며 불가운을 거듭 밝히는 등 독자노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어 안 대표는 “국민의당과 저는 지금 힘들고 두려운 광야에 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방에는 적뿐”이라며 “그래도 돌아갈 수 없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 저를 포함해 모두 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좋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4·13 총선은 일단 일야(一興多野) 구도로 치러지고 야권 통합론은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다.

다만, 수도권 연대는 안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친정배 공동대표와 김한길 선대위원장 등은 여전히 일부 선거 연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란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더민주 김 대표는 총선 응원이 무적비디오 촬영을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내가 보기에는 (안 대표가) 너무나 좀 흥분된 상태 아닌가 본다.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죽어도 못하겠다’ 하는 이런 표현 아니겠나”라며 “죽어도 못하겠다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 대표가) 회견 자리에서도 너무 자제를 상실한 상태에서도 말을 했다고 생각이 된다. 내가 논할 가치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공천 경쟁 본격화... 컷오프 ‘초긴장’

총선 D-37 관련기사 3·4·5면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천 심사를 통한 막바지 컷-오프(후보 압축) 및 경선 지역 선정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주 내에 현역 국회의원 2차 공천 원천배제자 발표를 비롯해 지역구 공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11일부터 지역별 경선을 시작한다. 공관위는 오는 8일 경선 지역을 시작으로 종합심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경선 지역부터 먼저 공개하고 이어 단수후보 공천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며 10~11일이면 심사결

터민주, 광주·전남 현역 1~2명 포함 10여명 컷오프

국민의당, 컷오프 광주 현역의원 1~2명 공천 배제

새누리, 공천심사 속도 ... 이번 주 2차 경선지역 발표

과 발표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히 공관위는 비현역 공천신청자와 달리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3선 이상 중진의 50%, 초재선 30%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경쟁력 심사와 윤리심사를 별도로 진행해 일정 기준 미달시 가부투표를 통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예정이다.

공천 배제되는 의원들은 한꺼번에 발표하는 대신 지역별 심사결과를 발표할 때 자

연스럽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 내에서는 광주·전남에서 1~2명 등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컷-오프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관위는 북수 후보 지역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경선을 실시, 20일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경선 대상자를 3명 이내로 압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공관위는 주중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종합심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비례대표 후보자 심사에 착수한다.

국민의당도 6일 광주지역 예비 후보 면접을 마치는 등 오는 10일까지 총 322명의 공천 신청 후보자의 면접과 자격 심사를 마무리 짓는다. 국민의당은 14일 경선 시작에 앞서 광주 현역 국회의원 컷오프를

발표할 예정이며 최소 1~2명 정도가 공천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광주 지역 총선 후보 경선에는 ‘속의 배심원단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후보 간 토론 또는 연설을 들은 뒤 선거인단이 토론 과정을 거쳐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속의 배심원단제는 선거구 유권자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명망가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속의 배심원단제 100% 적용 여부 및 규모, 여론조사를 병행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경선 방식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후 결론 내릴 계획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특정 후보 배려 등 각종 루머가 나돌고 있어 국민의당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룰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4일 1차 경선 지역 23곳 발표하는 등 공천 심사 일정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새누리당 공관위는 이번 주 내에 2차 경선 지역을 발표하는 등 22일까지 경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신창동 유적지에 역사 테마공원 조성

‘선사시대 유물 전시관’ 건립

한반 농경문화(벼농사)를 대표하는 신창동 유적지에 선사시대 유물 전시관이 건립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신창동 유적지 2만8000㎡ 부지에 연면적 2600㎡ 규모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신창동 유적지가 1992년 국가사적(375호)으로 지정된 이래 24년 만이다.

선사시대 유물 전시관은 상설 전시장, 세미나실, 수장고, 체험시설 등을 갖춘 단층 건물로 지을 계획이다. 국비 80억원, 지방비 120억원을 사업비로 책정했으며 올해 국비를 확보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공사를 진행한다는 목표다. 시는 산책로 등을 갖춰 주변을 역사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곳은 국내 최대 선사 농경 유적지로 1992년 9월 사적으로 지정됐지만 그동안 발굴조사 위주의 정비사업이 진행돼 왔다.

시는 다음달 중 문화재청에 국비를 신청하고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설계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신창동 유적지는 기원전 1세기 무렵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한 대단위 복합유적으로 이뤄져 있다. 1963년 이후 모두 16차례에 걸친 발굴조사에서 2만여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을 끝으로 23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 출발하오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주요 학력 및 경력**
- 국립출생, 전남대학교 법학과
 - 중국사회과학원 장기유학
 - 제32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제227기)
 - 광주지법·장흥지원·광주고법 판사
 -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 광주지법 부장판사
 - 강진·나주·장성·광주서구·목포 선거관리위원
 - 광주지법 목포지원장 퇴임

- 변호사 송희호 올림**
- 업무개시 : 2016년 3월 1일
 - 개업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6-2 2층(광주변회관 맞은편)
 - 대표전화 : 062)231-2300 팩스 : 228-2500
 - 핸드폰 : 010-2931-6875
 - 개업소일 : 2016. 3. 18.(금) 17:00~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국립공원 3년 무등산 옛모습 찾자 ▶6면



문화원류-브랏트 동물 이야기 ▶18면

깊이 있게 스며들어 찬란한 빛이 되다
헤라 오일 세럼 매직 포뮬라

아름다움에 깊이를 더하세요.
헤라만의 셀-바이오 모이스트™ 기술이 만들어 낸
출출한 미세오일입자가 걸피부는 신뜻하게, 속피부는 촉촉하게-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궁극의 보습을 선사합니다.
느껴보세요, 오일과 세럼의 마법 같은 만남

HERA

·유통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80-023-5454(수신자요금부담) www.hera.co.kr